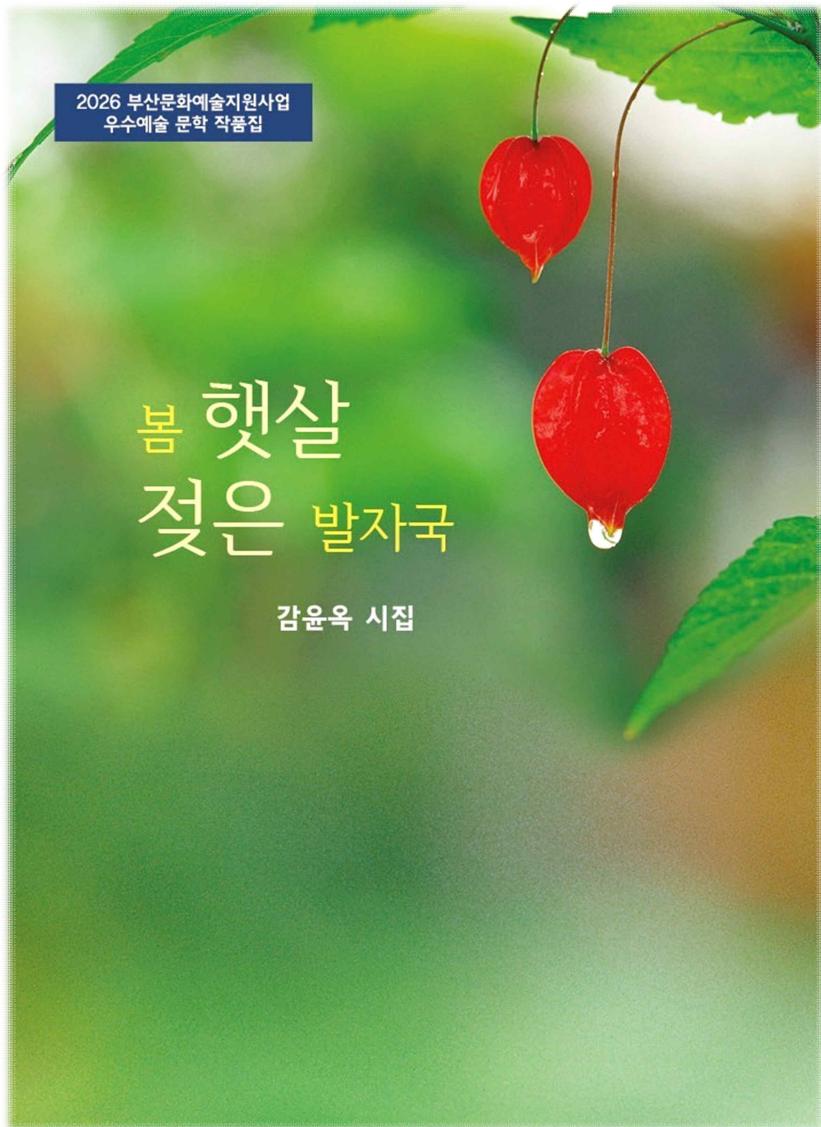


2026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 문학 작품집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감윤옥 시집





【시인의 말】

눈물은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려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앞에 설 때  
눈물이 대신 말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기가 막힐  
응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흘린 눈물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 속에 빛을 숨겨 두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아픔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혹 당신에게도  
눈물로 지나온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집을 읽는 당신의 삶에도  
그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별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2026년 봄에  
감윤옥

## 차 례



시인의 말 ... 3

### 1부 ..... 등 굽은 새우

귀향 ...	13
그림자를 벗고 ...	14
그 여자 ...	16
노을이 하루를 접을 때 ...	17
돌아오지 않을 등을 기다리는 일 ...	18
등 굽은 새우 ...	20
눈물로 쓴 연대기 ...	22
마음이 눅는 날 ...	23
봄 햇살 젖은 발자국 ...	24
아버지의 발자국 ...	26
막차 대합실, 유리창 불빛 ...	28
아킬레스 ...	29
아픈 손가락 ...	30
안녕하세요 ...	31
어부바 ...	32
여인의 무릎에서 ...	33
지문처럼 ...	34

## 2부 ..... 덩굴은 바다를 향해 자란다

조금 느려도 ...	37
찾물을 꿰이며 ...	38
가을의 첫 입맞춤 ...	39
가지치기 ...	40
감나무 아래 바다가 있었다 ...	42
그늘에 꽃 한 송이 ...	44
낮은 나무 하나 ...	45
덩굴은 바다를 향해 자란다 ...	46
민들레, 바람의 아이 ...	48
사라져가는 가슴 ...	49
수국 가까이 서다 ...	50
풀잎 아래 숨은 말 ...	51
바람이 눕는 날 ...	52

3부 ..... 별을 삼키는 바다에게

꿈	... 55
나비는 바다로 간다	... 56
눈산	... 58
매미	... 60
바다 한 모서리에서	... 61
별을 삼키는 바다에게	... 62
복어의 독	... 64
봄날의 기도	... 65
젖은 이름	... 66
한 조각 봄	... 67
흐르는 봄	... 68
회 한 접시	... 69
광어의 노래	... 70

4부 .....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

고슴도치 거리	...	73
갈증을 삼키다	...	74
괜찮아	...	76
밥상머리에서	...	77
분실물 보관함	...	78
불면 처방	...	79
침표 너머	...	80
소리 없는 안부	...	82
시간에 기대어	...	83
여수 그 별빛의 등줄기	...	84
은빛 긴 몸	...	85
익어가는 장독대	...	86
저녁 한 그릇	...	87
지친 햇살	...	88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	...	89
키피 한 잔	...	90
소금빵 줄에서	...	91

5부 ..... 별빛 한 줌을 가슴에 덮고

광야의 숨결로 ...	95
기도 ...	96
깊은 데로 가라 ...	97
나오미 눈물 ...	98
마라의 들에서 ...	99
나의 혈루증 ...	100
별빛 한 줌을 가슴에 덮고 ...	101
불타지 않는 나무 ...	102
새벽닭 울자 ...	103
아침 바다, 그 어스름한 기도 ...	104
유다의 변명 ...	105
자울신경 ...	106
입술 담은 새벽 ...	108
니르웨 항구에 어둠으로 눕는다 ...	109
* 해설 · 양왕용 시인 ...	111



# 1부

등 굽은 새우





## 귀향

바람 끝 서늘해질 무렵  
길가 코스모스 먼저 도착해  
어머니의 한숨을 흔든다

“그리 쉽게 피고  
그리 쉽게 지느냐” 물으면  
꽃잎이 웃는다  
“삶이란 잠시 머무는 바람일 뿐”

기다림도 서운함도  
낙엽으로 눕는 저녁  
가을은 마음에 젖어든다

이제야 안다  
저 꽃이 왜 흔들리는지를  
붙잡지 못해 더욱 애뜻한 것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를

## 그림자를 벗고

벗는다

묵은 바람의 껍질  
저녁 들녘에 말 대신 눈빛으로  
아버지의 등이 먼 데서 들려온다

손가락으로 지워낸 햇빛  
그 속엔 무뚝뚝한 그리움이 늘어 있었다  
소금으로 남은 마음

겨우내

손등이 갈라졌던 날들  
젖은 벽에 기대어  
입술로 바람을 붙들던 밤

슬픔의 모서리 문지르며  
그 속에 눌러 자란 그림자

어느 날

풀잎 끝에서 햇살이 울고  
나무 옹이 속에서  
새가 다시 짓기 시작했다

나는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을 밀어내는  
작은 바람의 이름  
하늘 끝까지 오르는 갈매기 날갯짓

이젠 나도  
등 굽은 손끝으로  
누군가의 어둠을 닦아낸다  
소리 없이 피는  
눈빛의 햇살 한 줌으로

## 그 여자

해를 지고  
걸어 온 구부러진 길

푸르고  
짧은 시절

무서리 내리는  
젓더미에 앉아서  
겉옷을 찢으며  
비늘 같은 상처를  
톡톡 털어내고

잔바람에도  
글썽이는 눈매로  
빈 뜰에 엮드린

그  
여  
자

## 노을이 하루를 접을 때

손끝에 닿는 먼지  
지친 발바닥에 쌓이는 시간의 무게

저물녘  
흙냄새에 젖은 구름이 어깨를 누르면  
바람을 신발 삼아 걷는다

저녁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면  
낡은 구두끈 사이로  
잊힌 별 하나가 미끄러진다

발걸음은 기억을 흔들고  
무릎까지 차오른 낡은 일기장을 끌며

갈라진 아스팔트 틈에서  
민들레가 부푼 심장을 내민다  
누군가의 눈물이 피어난 자리

## 돌아오지 않을 등을 기다리는 일

가만히  
그릇 하나를 꺼냅니다  
깨진 데 없어  
잘 쓰던 흰 사기그릇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괜히 된장 한 숟갈 꺼냅니다  
그 냄새 속에  
어머니의 손마디가 숨어 있습니다

차가운 그릇에  
김이 서릴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등을 기다리는 일은  
바람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조용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괜히 눈물이 납니다

이유도 없이  
물이 넘치듯 고인 눈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 눈물을  
작은 밥그릇 하나에  
조용히 담습니다

## 등 굽은 새우

등 굽은 새우가 있다  
파도와 바람이 수없이 지나간 자리  
그의 굽음은 버팀이고 기록이다  
등판에 새겨진 주름마다  
세월의 손가락이 찍혀 있다  
그것은 파도와 맞선 역사의 활자다

새우의 등은 직선이 아니다  
직선은 강하지만 쉽게 꺾이고  
곡선은 약해 보이지만 오래 견딘다  
세상의 짐을 등에 진 채  
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어쩌면 현명한 생존 방식이다  
굽었기에 부러지지 않고  
휘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굽은 등을 보며  
어머니의 허리를 떠올린다  
삶의 무게를 등에 지고  
가족을 위해 굽어버린 시간들  
그러나 그 등은 다리였다

우리가 건너온 다리  
우리가 지나온 무지개 곡선

새우는 물속에 살지만  
그 굽은 등이  
물 밖 인간에게 말을 건다

“너는 아직 곧게 서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 세월을 겪지 않은 것이다  
굽음은 패배가 아니라 흔적이고  
생이 지나간 자리의 문장이다”

굽은 등은 파도가 써 내려간 서체  
바람이 새겨 넣은 교과서  
그 곡선을 따라가면 삶은 직선보다 깊다  
우리는 안다  
등 굽은 새우 한 마리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안에  
우리 초상이 비친다는 걸

## 눈물로 쓴 연대기

어머니 손등에  
말 못 한 계절이 눕고  
아버지 등뼈에  
눈물로 쓴 연대기가 걸려 있다

피보다 깊은 건  
밥 냄새에 스며든 그리움  
정보보다 무거운 건  
얼싸안고 울던 침묵의 무게

눈물이 자리를 뜨면  
다정하게 굳은 서늘한 어깨

우리는  
서로의 생애에  
나뭇잎 하나씩 붙이고 산다

## 마음이 눕는 날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젖어 흔들린다

몸이 아픈 날

마음도 누워버려서

시간마저 한발 늦게 지나간다

담장 너머

비둘기 두 마리

서로의 온기로 버티고 있다

나는 말이 없고

꽃 피는 소리만

창틀 아래에서

쿵

아프다는 건

살고 있다는

조금 늦은 대답 아닐까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어머니가 길을 나섰다

낮익은 집 기둥도 잊으시고  
꽃피는 담장도 잊으시고  
봄 햇살 젖은 발자국  
한참을 가다가 사라졌다

나는 흠냄새 속에서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돌아오시지 않는  
저 하늘 끝에 대고 부른다

어두운 새가  
어머니 기억을 쪼아 먹고  
남은 그늘이 바람에 흩날린다

슬픔은 뿌리로 깊어져  
내 가슴을 파고들고  
안타까움은 피로 올라  
눈물꽃이 되어 핀다

어머니,  
길 잃은 저 불빛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라  
내 심장 끝에  
등불 하나 켜 놓는다

## 아버지의 발자국

깜깜하고  
묵직한 길

마음도  
다리도  
휘청거리는 오후

가시투성이  
온몸을 만지며  
덩굴처럼  
엮혀드는 손발

온몸이  
다 젖게  
강을 건너면서  
떠내려 보낸 울음

어지러웠던  
청춘의 발자국

해 지는 하늘에  
빨강계 익은 감이 되어  
눈물이 등꼴으로  
주  
    령  
주  
    령

## 막차 대합실 유리창 불빛

늦은 밤  
시간의 어깨를 붙잡고  
누군가 손을 흔들다 사라졌다

대합실 유리창엔  
바람보다 먼저 핀 이별의 얼굴

불빛 하나  
의자 위 외투를 덮고  
집 없는 눈물로 떨고 있다

막차는 오지 않았고  
바람만 가방 속에 조용히 눌러앉는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불빛이면 좋겠다

## 아킬레스

물속에 잠기지 못한  
작은 뒤편치 하나로  
그는 영원히 죽음을 입었다

어머니 사랑은  
끝끝내 작은 틈을 덮지 못했고  
전쟁 불꽃은  
그 틈을 향해 정확히 날아왔다

그는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높았지만  
친구 죽음 앞에서 무릎 꿇었고  
사랑 없는 전쟁 앞에서 눈 감았다

아킬레스  
피로 물든 영웅의 발꿈치에  
아직도 바람이 운다

## 아픈 손가락

다섯 중 하나  
늘 늦게 따라오던  
그 조그만 손가락이 있다

바람 부는 날엔 먼저 시리고  
밤마다 혼자 붉게 달아  
몸속 어디선가 울고 있다

나는 몰래  
그 손가락을 입김에 감싼다  
그 아이는 말이 없다  
나보다 먼저 세상의 아픔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그 손가락이 없었다면  
나는 아픔을 모른 채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걸

## 안녕하세요

저 산 너머 달빛 진 자리  
바람 한 줄기 뉘 집 담장을 넘다가  
문득 그대 이름을 부르네

“안녕하세요”

봄물 마신 버들가지 푸르른 저녁  
먼 길 돌아온 기러기 한 마리  
낮익은 마당 가에 내려앉듯  
그대 말 한마디 내 가슴에 던지니

“안녕하세요”

속울음 감춘 민들레  
길섶에 앉아 봄을 맞듯  
나는 그 한마디에 꽃 피우고 진다

“안녕하세요”

## 어부바

등에 업힌 저녁 햇살이  
눈꺼풀을 감싸던 날들

“어부바”  
두 다리를 매달고  
엄마 숨결에 기대어 잠을 잔다

“어부바”  
두 발이 땅을 떠나고  
세상 산맥이 등 뒤로 이사 간다

땀 냄새 나는 여름  
감기 기운 돌던 겨울  
엄마는 묻지도 않고  
“어부바”

혀끝에 젖은 언어 하나  
뜨거운 소금물로  
목을 훑는다

## 여인의 무릎에서

어느 날 눈물을 주워 들었지  
늪은 매화나무 아래  
할미꽃처럼 주저앉은 여인의 무릎에서

그것은 바람보다 먼저 지는 꽃이었고  
모든 봄이 지나간 뒤에도  
찢레 향으로 남는 것이었다

눈물은  
핏빛보다 붉고  
달빛보다 허망한 것

나는 믿었지  
눈물은 사람의 속살 꺾이는 소리

그래서 나는  
눈물을 종지에 담아 마셨다

이름 부르다  
스스로 젖는 바람으로

## 지문처럼

어머니 젓 냄새는  
말이 되어 입에 고였다

어머니 무릎 아래  
말보다 울음이 먼저  
그 울음이 말이 되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물 속에서 피는 문장

기도보다 먼저 배운 말  
잠든 나를 깨워  
별빛으로 가슴을 덮는다

모국어는  
바람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  
심장을 흔들고 갔다

모국어는  
나를 만든 피다

내 지문처럼

## 2부

덩굴은 바다를 향해 자란다





## 조금 느려도

꿈은 가만히 젖는 불빛  
바다의 심장 한쪽에서  
물고기로 떨리며 널 기다렸다

친구는 파도 속 촛불 같은 존재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머물며  
울컥 솟던 어둠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인생은  
소금꽃 핀 상처 위를 건너는 일  
바람조차 등을 돌리는 날에도  
네 지느러미에 기댈 수 있었다

별빛이 물속으로 떨어질 때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다시 떠오를 거야”

귓가에 남은 네 음성을 듣고  
햇살 한 조각을 품고 헤엄친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 하루를 안고

## 찾물을 끓이며

찾물을 끓이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눈꺼풀 아래 번지는 푸른 불빛  
남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물 끓는 소리는 오래된 생의 노래  
할머니의 주름진 손끝에서  
겨울마다 들리던 숨의 울림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  
시간의 결이 찻잔 속에 잠긴다

차를 따른다  
그 향기 속에는 햇살 한 줌과  
그늘 한 줄기가 앉아 있다

나는 그 속에서  
바람 끝에 매달린 이름을 마신다

그 이름 어머니 숨결이며  
남은 이의 위로다

## 가을의 첫 입맞춤

여름이  
천천히 등 돌린다

들녘 벼 이삭이  
허리 굽혀 바람에 인사한다

아직 덜 익은 마음을  
햇볕에 걸어둔다

매미 울음이  
하늘 저편으로 물러서고  
참새의 날개가 가을빛을 부른다

열매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낮과 밤이 맞서는  
9월 모서리에서  
내 안의 작은 씨앗 하나  
저문 햇살에 이름을 부른다

## 가지치기

고집이란 나무가 있다  
제멋대로 하늘을 끊어대는

편견이란 가지에  
햇살이 웅크리며 숨을 죽인다

녹슨 새의 울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철심이다

나는 오늘 그 나무 밑에 선다  
가위 한 자루 들고

내 안의 가지를 자른다  
틀에 박힌 문장  
굳은 표정  
남의 말을 막던 귀

뚝, 뚝  
잘려 나간 가지마다  
푸른 눈물이 맺히고

어둠 끝자락에  
햇살 한 줄기가 길을 내고  
내 마음에도 아침이 핀다

단힌 생각의 틈새로  
빛이 젖어든다

## 감나무 아래 바다가 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돌아오지 못한 발자국 하나 매달려 있다  
노을빛에 물든 듯  
찬 서리 같은 기억이 입을 다물고 있다

하늘은 낮게 몸을 기울였고  
파도는 바람의 어깨를 빌려  
흩어진 날개로 부서진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내 눈 속으로 들어와  
조용히 나를 덮어 준다

감 하나가  
가을 심장처럼 달려 있다  
그 속엔 오래된 이름  
짠맛과 기다림이 섞여 있다

바다는 그 감을  
하늘 끝으로 띄워준다

빛이 부서지는 그 사이로  
희망이 씨앗처럼 떠오른다

찬 서리가 내려앉을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바다는 멀어질수록  
따뜻한 미소로 나를 감싼다

## 그늘에 꽃 한 송이

등 뒤에서 울던 바람이  
그림자를 접어 어둠 속에 눕힌다

꽃은 피지 않았다  
눈보라 입김이 열던 봄날  
그 고개 아래  
눈물의 잎사귀 울고 있었다

저녁 무릎 아래  
딱딱한 물로 고여 있던 묵은 숨  
내 안의 문이 열릴 때  
두 손 모은 손이 흔들리고 있다

한 줌의 침묵이 뿌리로 깊어질 때  
당신의 손끝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와서  
내 그늘에 꽃 한 송이 앉힌다

## 낮은 나무 하나

저녁별 지는 들녘 끝  
낮은 나무  
바람을 등에 지고 섰다

새들도 잠든 시간  
그림자는 마른 피 냄새로  
땅속 깊이 스며들고

그대  
눈 감으면 들리는 숨죽인 기도  
한 줌 눈물 되어 떨어진다

십자가는  
붉은 심장이  
눈물 흘리는 곳

## 덩굴은 바다를 향해 자란다

온천물이  
가슴속에서 끓고 있다  
세상 끝으로 가보고 싶은  
꿈 하나

덩굴은 벽을 넘고  
바람을 타고  
하늘 쪽으로 뻗어간다

바다를 마주한 절벽에  
나를 심는다  
소금기 어린 외로움에도  
물러서지 않으려 돌을 감싸 안는다

하늘은 멀지만  
바다는 내 발 아래 있다  
푸르른 물결 위로  
작은 배 한 척  
출렁이며 나아간다

손끝 이별이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나가고  
빛이 남아 있는 자리에 덩굴은 다시 기어간다

## 민들레, 바람의 아이

저 들길 모퉁이  
누가 버리고 간 노란 웃음 하나  
민들레라 불리는 그 아이는  
뿌리째 뽑히는 날에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짓밟힌 자리마다  
다시 고개 드는 고요한 힘

꽃이라 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잡초라 하기엔 너무 슬프다  
그러나 봄날마다  
그 노란 입술은 어김없이 핀다

바람이 와서 씨를 데려가도  
민들레는 말이 없다

아마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노래일지도 모른다

## 사라져가는 가슴

나이테 금이 어깨에 갈수록  
날말이 얼굴에 눕고  
눈빛이 뒤따라 마른다

햇살이 무릎까지 오르던 스무 살  
바람만 스쳐도 눈물 흘렸는데  
빛이 스치는 틈 볼 우물에  
손끝으로 긁어내도 먼지만 훑날린다

남은 온기는 갈라진 입술  
주름 간 이랑 위에 눕는 숨결  
저물녘 새 한 마리  
목이 타서 울지도 못할까 두렵다

낮선 길가에 핀 민들레에게 말을 건다  
“물 좀 있니?”

민들레꽃이 바람결에 고개 들어  
눈물 한 방울 건네줄 때  
메마른 가슴에 물소리 흐른다

## 수국 가까이 서다

해운대 동백섬 솔밭  
비 쏟아지면  
천 개 얼굴로 피는 꽃

물빛 빗자국  
분홍빛 손짓  
하얀 물거품으로

눈물 빛깔이  
꽃잎마다 번진다

나는 그 곁에 서서  
묵은 일기장을 꺼내어  
젖은 꽃잎 위에 올려놓는다

솔향은 바람 따라 흘러가고  
빗소리는 슬픔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적신다

나는 네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다

## 풀잎 아래 숨은 말

해가 목덜미까지  
붉게 올라  
세상이 국밥으로 식어가는 해거름

어깨 위엔  
말 대신 먼지가 내려앉고  
풍경은 구겨진 종이로 접혔다

“괜찮아”

너의 입술 끝에서 떨어진  
작은 이슬 하나

그 말은  
풀잎 속에서 자라난 바람이었고  
나는 비에 젖은 새처럼  
심장을 털고  
다시 날개를 편다

## 바람이 낚는 날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옆드린다  
한 줄기 햇살이 지나가며  
이마를 쓸어준다

몸이 낚은 날  
바람은 병실 커튼으로 미끄러지고  
낮은 체온으로  
겹겹이 쌓인 숨결 사이로  
시간이 스며든다

담장 너머  
비둘기 두 마리 서로 그림자를 껴입는다  
돌담은 체온을 버리고  
눈을 감는다

나는 위문 대신  
꽃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노래는 창 아래에서  
하얗게 핀다

나는 이제  
울음 데우는 법을 안다  
무릎까지 차오른 햇살 속에서  
풀잎 하나가 조용히 손을 편다



## 3부

별을 삼키는 바다에게





## 꿈

꽃이여  
그 한나절의 향기로  
천년을 속이고 지는구나

새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구름 뒤로 날아갔다

강물은  
옛사람의 흘러간 노래처럼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고  
나는 그 물가에  
한 줌 그림자 되어 앉았네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고  
나는 그 끝에서  
손바닥의 주름 속에 길을 낸다

## 나비는 바다로 간다

작은 꽃씨 하나  
바람에 실려  
바닷가 모래등에 떨어진다

소금기 어린 땅이었으나  
그 자리에 조용히 뿌리내린다

며칠 후  
나비 한 마리 날아와  
그 풀잎 위에 앉는다

햇살이 문을 열고  
바람이 꽃잎을 흔든다

나비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결 위로 날갯짓하며  
수평선을 향해 나아간다

바다는 나비를 품는다

나는 믿는다

나비 한 마리가  
세상 바꾸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바다 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 눈산

밤새 내린 눈  
산허리를 감싼다  
납은 돌길 묻히고  
옛사람 발자취 묻히고  
산새 날아간 길 묻히고  
노루가 건넌 숨결 묻히고

겨울은 홀로  
바람의 경전 읽는다  
나무마다 입 다물고  
가지마다 꿈을 감춘다  
눈은 그 꿈 위에 다른 꿈을 덮는다

눈 속의 풀씨 하나  
그 속의 봄  
봄 속의 꽃잎  
꽃잎 속의 바람  
바람 속의 먼지까지  
산은 이미 다 품고 있다

하얀 장막 뒤에서  
시간은 고요히 불을 지핀다  
재를 보듬는 불  
누구도 보지 못하는 불  
하루하루 깜박이며  
겨울을 건너는 봄

그 불을 보기 위해  
나는 이 산을 오른다  
발끝이 묻히고  
숨이 묻히고  
생각이 묻히고  
마침내 내 안의 겨울도 묻힌다

## 매미

여름 숲속  
울음이 하늘을 찢는다

짧은 날들을 붙잡아  
숨이 닿는 끝까지  
목청 태운다

푸른 잎사귀도  
울음에 떨고  
햇살마저 몸 흔들며 피어난다

인생도  
저문 햇살의 마지막 불꽃처럼  
남은 날들을 잎사귀까지 태워야 한다

## 바다 한 모서리에서

꿈은 젖은 비늘  
파도의 손끝에서 반짝이며  
바람의 목소리 따라 헤엄친다

친구는 물빛 그늘 속에 핀  
조용한 해초 한 송이  
말없이 곁에 있으면서도  
내 슬픔을 먼저 알아차리는 눈이다

인생은 늘 짠 내 나는 노래  
가끔 별이 바다로 떨어져  
가슴에 푸른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등지느러미가 되어  
흐르지 않는 물살을 함께 밀고 나간다

지금도 나는 바다 한 모서리에서  
따뜻한 꿈 한 점을 품고  
소금기 어린 햇살 먹으며  
천천히 내일을 향해 헤엄친다

## 별을 삼키는 바다에게

허기진 하루 끝  
식탁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두 손 모은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노을 한 조각 삼킬 수 있도록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 별이 뜨고  
내 가슴에  
작은 배 한 척 흔들린다

바다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기도의 강이다

별들은 멀리 있지만  
한 알씩 삼키며  
나는 나를 바다 쪽으로 밀어낸다  
길이 없어도  
물결은 길을 만든다

젖은 손으로 노를 쥐며  
나는 믿는다  
가장 깊은 바다에  
별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 복어의 독

혀끝에  
달고 푸른 칼날 하나  
심장 속을 스미듯 지나가네

쓴 것이  
꽃으로 피는 순간  
살아 있다는 게 아리다

아,  
죽음도 설탕처럼 녹는  
그 한 점 독

## 봄날의 기도

햇살이 바람 따라  
산기슭을 어루만지면  
묵은 나뭇가지 끝에서도  
작은 입술이 열립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진달래는 계절을 알고  
먼 옛날 노래로  
저 홀로 피어납니다

나는 다만 눈 감고  
그 봄의 설렘 앞에  
한 줄 기도를 올릴 뿐  
“아, 이토록 살아 있음이여”

## 젖은 이름

해 뜨기 전 바다는  
잠든 어머니 품처럼  
해무가 살그머니 무릎 꿇고 있다

그 무릎엔  
잃어버린 이름 하나  
젖은 갈매기 날개로 떨고  
물고기들은 꿈을 먹다 지쳐  
포말 속에 잠겨 운다

나는 그 안개를 한 모금 마시며  
네게 쓰지 못한 편지를  
혀끝에 걸어둔다

해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와  
묵은 그리움을 끌어안고  
한 점 소리 없이 흩어진다

## 한 조각 봄

저기  
바람보다 먼저 웃는 게 있으니  
그 이름, 개나리

산기슭 무너진 흙담 위에  
어머니 웃음으로 피고  
다 감은 눈꺼풀 속  
젖은 옛날 다시 여는 손짓이다

노란 혀끝마다  
봄은 절절 끊고  
말 못 한 설움이  
가지 끝에서 자꾸만 부풀다

나는 개나리꽃을 뜯어  
짚신에 꽂아 두었더니  
그날 밤 꿈에 오신 어머니  
문턱에 석상으로 앉아 계신다

개나리는 꽃이 아니라  
어디선가 무너지던  
한 조각 봄이다

## 흐르는 봄

초록빛 물결이  
담장 너머 스며들 때  
나는 들켰다  
봄이라는 도둑에게

햇살은 살구 향을 머금고  
내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바람은 실핏줄처럼  
마음속 깊은 곳을 지나간다

피어나는 꽃잎은  
시간의 결정을 녹이는 혀  
해거름을 훔아 지우며  
낡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다

봄은 흐른다  
어린 날 웃음으로  
잇힌 연필 자국처럼  
손끝을 스치며 사라지는  
물의 기억으로

## 회 한 점시

입 안에  
바다가 잠깐 머물다 갔다

은빛 물결 한 점이  
허끝에서 풀리며 사라진다

살 속에 숨은 파도의 숨결이  
내 안으로 스며들고

그 짧은 생의 투명한 결심  
이 목구멍을 지나  
한 점 눈물로 남는다

회 한 점  
그건 바다가  
네게 건넨  
가장 조용한 시다

## 광어의 노래

모래와 그림자 사이를 기어 다니며  
낮은 곳의 언어로 숨 쉰다

등 대신 배를 하늘로 두고  
엎드린 세상을 본다

빛의 물고기들은 눈물 속을 지나가고  
나는 살기 위해 모래를 삼킨다

파도는 내 이름을 지운다  
비늘 하나로 별을 받쳤지만  
지금은 밀바닥  
모래의 숨 하나

살아남는다는 건  
숨 쉬는 일보다 더 깊은 일  
물결의 손톱에 걸려  
망망한 외로움에 등을 내맡긴다

나는  
눈을 감고 빛의 방향으로  
천천히 몸을 뒤집는다

## 4부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





## 고슴도치 거리

한 발 더 다가서면  
별빛 속내가 강물로 흔들린다

숨결이 맞닿을 즈음  
어둠의 피가 난다

햇살 첫 숨결이  
등가시 사이로 들어오고  
정오 식탁에는 그림자가  
촉수 끝마다 걸린다

눈빛이 겹치는 순간  
몸이 둥글게 말린다  
숨소리도  
가시에 찢긴다

빛 뒤에 숨어 있으면  
바람도 기억을 놓아버린다  
눈빛이 닿지 않아  
별빛조차 길을 잃는다

## 갈증을 삼키다

눈 뜨니  
COVID19  
그늘이 몸에 내려앉았다

머뭇거림은  
그림자다

목구멍 깊숙이  
모래가 굽어대고

기침 사슬에 묶이고  
입술은 타다 남은 장작 파편

혀끝은  
씻덩이 불길 위에 놓인다

숨결은  
재 냄새로 번지고

심장은  
북처럼 빈속을 울며  
물 한 방울 찾는다

“거기 누구 없소?”

“불로 소금 치듯  
내 영혼이 물처럼 녹았으니  
생수 한 방울  
생수 한 모금만  
목울대로 넘기게 해 주시오”

“거기, 누구 없소”

## 관참아

해가 목젓까지 차오르고  
어깨가 저문다

소리 없이  
무너진 하루

바람이 스쳐 가며  
등을 어루만진다

강 건너 숲이  
저녁 빛에 잠기고

나는 노을 속에서  
별빛을 삼킨다

## 밥상머리에서

깊은 노을이 식어가는 접시에  
기도하는 입김으로  
햇빛 밥내가 집 안을 채운다

하늘 무게가 따뜻하게 내려앉는 자리  
손가락 부딪히는 소리에  
가족들 생채기가 녹는다

밥 냄새 고인 틈새마다  
해맑은 눈길을 전해 주며  
숨결로 위로가 스민다

밥 냄새에 기대어 앉은 식솔  
가슴 위에 온기를 포개고  
식탁은 다시 햇살을 먹는다

## 분실물 보관함

역 광장

고요가 쌓이는 모퉁이  
분실물 보관함이 있다

손때 묻은 우산

찢어진 가방  
주인 없는 신발 한 짝  
기억나지 않는 열쇠 묶음

그 아래 보이지 않게  
영혼의 거울이 놓여 있다

먼지가 쌓인다

망각의 이끼가 번져간다

기다림의 의자는 끝내 비어 있다

밤마다 분실물 보관함 문이  
스스로 열린다

영혼의 거울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 불면 처방

어둠 속에 밥 한 그릇 놓고  
석상으로 앉아 있다

숟가락 끝에  
식은 밥알이  
소금보다 짠 바다를 만든다

별빛 한 줌  
하나둘 눈물 위에서  
밥알로 반짝인다

나는 오늘도  
하늘 약국에 들러  
달빛 한 칩 받아온다

별빛 두 알을 삼키며  
나는 또 불면을 견딘다

## 십표 너머

노을 피 한 줌이  
강물 위에 흘러내릴 때

어머니는  
햇살에 지친 날개를 접고  
하늘나라로 귀가했다

어머니가 귀가하는 날  
집 앞 울에 매달린  
붉은 고추는 울음 터뜨리고

달빛은  
붉은 울음을  
하얀 손수건으로 닦는다

눈물은  
강물 위 흰 숨결로  
밤마다 베개 적시며 흘러내린다

새벽 문턱 화들짝  
내 손바닥엔 갓 떨어진 감 한 알  
따뜻한 햇살이 앉아 있다

어머니가  
남기신 심포는  
내 미완의 노래로  
별빛 같은 폭죽이 되고

나는  
다시 피어나는  
들꽃이 된다

## 소리 없는 안부

삶의 뒤편길에  
누군가 손 흔들고 간 자리에  
조용히 안부를 놓아둔다  
“괜찮냐?” 말 대신  
햇살 한 줌 가만히 건넨다

지친 마음 돌아눕는 날에는  
바람도 말없이 등을 쓸어주고  
작은 기도로 피어난 들꽃이  
“괜찮다”라고 속삭인다

가야 할 길 아직 멀고  
만나야 할 그리움도 남았지만  
삶은 마음 한구석에 놓인  
따뜻한 햇살

그 햇살 품에 안고  
누군가의 안부가 되려  
뒤편길을 천천히 걷는다

## 시간에 기대어

늡은 달빛  
담장에 등 대고 숨을 고른다  
나는 시간의 어깨에 기대어  
아직 오지 않은 내 그림자를 만진다

시간은 이끼 낀 말  
천천히 흙 속의 신을 밟으며 걷는다  
그 등쪽엔 먼지 대신  
잃어버린 이름들이 눡는다

나는 그 걸음을 따라  
손목에 감긴 새벽을 문지르고  
속이 비어 있는 종소리를 꺼내  
마른 입술에 대본다

기댄다는 건  
무너지는 쪽으로 조금씩 자라는 일  
한 줌의 피로 따뜻한 노을이  
시간의 무릎 아래로 조용히 변겨간다

끝내 기다리지 않은 봄처럼  
시간의 가슴에 피 한 송이 놓고  
조용히 돌아앉는다

## 여수 그 별빛의 등줄기

푸른 바다 한 자락이  
내 가슴을 덮는다  
조개의 숨결로  
소금빛 웃음 흘리며

섬은  
하늘 아래 가장 오래된 별 하나  
눈썹 같은 능선 위에  
사람의 체온을 피워 올린다

여수여  
너는 물속에서 태어난  
첫 사람의 입김  
말을 잃은 달빛이  
파도 위에 무릎 꿇는다

나는 본다  
등대 아래서  
뱃사람의 손금 속에 핀  
어머니의 눈물꽃을

별을 젖 물리던  
사람의 마을

## 은빛 긴 몸

한 줄기 칼날로  
바닷속 어둠 가르며 살아간다

비늘은 달빛을 닮고  
몸은 파도의 칼자루에 묶여  
끝없이 잘려 나가도  
다시 은빛으로 이어진다

깊은 바다의 침묵 속  
굽이마다 파도가 칼날을 베풀어  
갈치는 자기 스스로를 벤다  
아픔이 잘려 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은빛이 돌아난다

은빛 긴 몸은  
파도와 백 번 싸움 끝에 남은  
생존 검이다

## 익어가는 장독대

한 줄기 바람도  
숨죽이며 스며드는 저녁  
창밖 장독대는  
말없이 익어가고 있다

햇살이 하루를 다해 내려와  
옹기의 살결 위에  
따뜻한 손을 얹으면  
그 속에서 오래된 시간의 숨결 듣는다

참기름 냄새 뻤  
어머니 손등 같은 그릇들  
그 아래 묻혀 있던 말들이  
향기로 올라온다

꽃이 피듯  
소금 속에서도 단맛은 돋는 법  
그 깊은 속삭임 들으며  
묵묵히 늙어가는 법을 배운다

## 저녁 한 그릇

쓸쓸한 불빛 아래  
쌀 한 톨  
별 하나 흘러내린다

찬물 같은 고요가  
방 안 가득  
무말랭이 젓갈마저도  
입 다물고

손가락 들면  
달빛이 퍼지는 그릇 하나  
그 속에 웅크린 그림자

한 입 또 한 입  
그리움은 짝 짝 씹히고  
밥은  
눈물처럼 삼켜진다

## 지친 햇살

하얀 벽 창가에  
노인의 눈빛이 앉아 있다

햇살은 식은 피로 식탁 위를 흐르고  
멈춘 시계 속에서  
시간은 먼지로 자란다

대화의 등불 꺼진 방  
바람이 창턱을 긁으며  
오래된 숨결 지나간다

노을은 쓴 약이다  
스며드는 바람은 주사다  
가슴 언저리에 얼음이 놓인다

부르지 못한 이름들  
저녁놀에 눌러 울음도 없다  
입술 끝에서 눈물 냄새만 자란다

강 건너는 빛 한 점  
심장의 시계가 느리게 돈다  
별빛 의자 위에서  
노인은 등불 냄새를 킂다

##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

늦은 점심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  
울컥 뜨거운 게 치민다

햇살 좋은 오후  
뒷모습 길게 드리우고  
먼 길 떠난 사람

무엇이 그리 급해  
신들메도 메지 못하고  
홀홀 떠나갔나

청양고추 입에 무니  
눈물 콧물 섞인 밥알  
도리머리 한다

## 커피 한 잔

찾잔 속에  
그대 목소리가  
한 모금씩 식어간다

마주 앉았던 그 날 창가  
햇살이 팔꿈치에 기대던 오후  
말없이 웃던 눈빛  
이제는 낡은 사진첩 되어  
김으로 피어오른다

쓴맛 뒤에 감춘 단맛으로  
그대와 의 시간도 지문으로 남는다

입술을 대는 순간  
흩어진 계절이  
내 안에서 조용히 젖는다

커피 한 잔  
그건 그대를 다시  
한 모금 불러내는 일이다

## 소금빵 줄에서

소금 한 알이  
땀방울로 반짝이며 터지는 새벽  
오븐 속에서 바람은  
따뜻한 노래를 읊는다

밀 냄새 속에  
햇살이 스며 버터빛으로 부풀고  
파도는 그 향에 끌려와  
식탁 언저리에 앉는다

손끝에서 숨결이 피어나고  
치대는 소리마다  
심장이 하나씩 부풀며  
포근함이 구워져 빵이 된다

창문은 달콤한 냄새로 열려 있고  
아이들 웃음이 파도를 타고 와  
빵 위에 부서지는 빛이 된다

붕긋한 가슴으로 가는 길은  
눈물로 반죽이 된 소금빵  
끝내 식지 않는 뜨거운 파도



## 5부

별빛 한 줌을 가슴에 덮고





## 광야의 숨결로

빛은 말없이 흠을 덮는다  
부서진 먼지와 고요를 품고  
가시는 햇살 웃음을 길게 삼킨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소금꽃으로 돌아나고  
한 번도 젖지 않은 하늘  
몸으로 기도한다

당신은 내 속의 마른 물결  
한 줄기 금으로 새기셨으니

피 맺힌 나이테마다  
침묵이 눕고  
그 위로 젖은 이름 하나  
서늘한 향기로 흠어진다

나는 마른 한낮에 서 있는 나무  
눈먼 불꽃으로 타오르는 기둥

## 기도

여름의 긴 터널  
번뇌를  
머리에 이고

무지함으로  
오만하거나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사람을 품으며  
때 묻지 않는 순결한 말로  
눈송이 같은 언어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당신 입김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당신의 연필이 되어  
상처를 싸매는 붕대로  
숙성된 언어로  
당신의 전령사가 되게 하소서

##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의 손에  
밤새 비워낸 그물이 있다

빈 바다 위  
그물을 던진다

파도는 아무 말도 없고  
달빛만 물러가던 새벽이다

“깊은 데로 가라”  
그 한마디에  
그물은 다시 바다를 향하고

파도는 순종으로 물결을 연다

믿음이란  
빈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일

눈물로  
빛을 삼키는 오후

## 나오미 눈물

산그늘  
길게 늘인 해거름

어지러웠던  
청춘의 발자국

구부러진 주름살  
핏빛 가슴

매운 바람  
모래를 씹으며

황혼과 함께  
깊은 밤 개울가에 앉아

눈물 흠치며  
울음 떠내려 보낸다

## 마라의 들에서

나는 이름을 버렸다  
나오미  
그 고운 소리조차  
쓴풀처럼 내 입안에서 말랐다

모압의 태양은 내 등을 탔고  
두 아들은 흙 속에서  
해마다 다른 꽃으로 피었다

홀로 돌아온 길  
유다의 먼 들녘에  
룻은 조용히 따라왔다  
그 아이 눈은 나보다 깊고  
입은 나보다 참았다

보리 이삭이 익어가는 소리  
내 허물 위로  
하나님이 다시 밀알을 뿌리신다

나는 이제 안다  
쓴물이 흐르는 그 강 밑에도  
단물의 뿌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걸

## 나의 혈루증

새벽이슬에 새벽하늘이 다 젖도록  
힘한 벼랑 느릿느릿 걷는 무거운 그림자

날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청춘은 부러지고

흑백사진으로  
어두운 시간 속에 갇혀  
상처 입은 울음소리가  
꽃무늬로 자라나는 무거운 밤

피울음이 깊을수록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내 옷에 손을 대어라”

## 별빛 한 줌 가슴에 덮고

들꽃이 피었다  
눈물로 접힌 바람 한 귀퉁이에서  
말없이 계절을 꺼내며

하늘은 접힌 기도의 봉투  
그 안에 찢기지 않은  
별 하나 숨어 있고

슬픔은  
누군가 다녀간 자리마다  
빛을 놓고 간다

기도로 떠오르는  
너의 마지막 웃음이  
눈물 속에서 다시 별이 되었다

밤이면 나는  
그 들꽃 아래 눕는다  
별빛 한 줌 가슴에 덮고

## 불타지 않는 나무

광야가 내 등을 밀었다  
햇살이 바람의 혀로 나를 더듬고  
먼지들은 내 무릎을 베고 울었다

그대는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손가락으로 내 가시를 짚었고  
가시 밑에 숨은 물소리 들려주었다

나는 말라버린 뿌리에게  
그대 침묵을 물로 먹였다

기억하는가  
내 속살을 깎아  
당신의 성막 한 기둥으로 세운 날  
피 냄새와 향기가 같은 색으로 울던 날을

나는 지금도  
불타지 않는 나무로  
당신 앞에 조용히 서 있다

## 새벽닭 울자

검은 밤  
무심한 듯  
결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

새벽닭 울자  
모래 씹으며  
황망히 도망가다

젖은 담벼락에  
바람처럼 기대어  
한 줌 눈물을 만지작거리며

절망의 끝으로 걸어간다

## 아침 바다, 그 어스름한 기도

파도는 밤을 밀어내며  
희망을 발끝에 묻혀온다  
물빛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위로  
빛이 피어오른다

바다는 늘 먼저 깨어  
흘러간 시간의 어둠을 씻는다  
새벽을 삼킨 물결 하나가  
사람의 가슴에 노래가 된다

나는 그 앞에 작은 돌로 앉아  
세상의 숨을 들이마신다  
햇살은 아직 말이 없지만  
조용히 등을 밀어준다

저기 저 수평선 너머에도  
누군가가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파도는 늘 돌아오는 법이니까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은 채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 유다의 변명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둠 짙은 거리  
막차는 오지 않고

돌무덤에 갇힌 침묵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울다가

내면 깊숙이  
할 말은 많아도

술에 취한 듯  
속 깊은 울음만  
오래 앓은 기침 소리 마냥 게워낸다

## 자율신경

물속을 걷는 기분이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숨이 자꾸 가빠온다  
가슴속 어디선가 작은 종이 울리고 있다

밤이 오면 더 깊어지는  
어지러움과 눈물 사이  
나는 내가 아닌 타인으로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

길을 걷다 멈추면  
몸이 먼저 울고  
마음은 늦게 따라온다  
내 안의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  
눈물도 조용히 삼켜야 한다

봄이 오면 나도 조금  
따뜻해질 수 있을까  
한 줌의 바람이라도  
내 어지러운 영혼을  
조금만 흔들어주면 좋겠다

## 입술 담은 새벽

저녁 들녘

소리 없는 기도로 풀을 씹는다

바람은 지나가고

해는 천천히 등을 감싼다

그 누구에게도 미움 한 번

내뱉지 못한 긴 침묵 속에서

소는 눈물을 흘린다

주인은 모른다

그 눈물이 굶은 날씨 탓인지

잃어버린 송아지 때문인지

입술 담은 새벽으로 울음 흘리는

하늘 아래 수많은 이름 위에

햇살 한 줌 어깨 위에 놓는다

## 니느웨 항구에 어둠으로 눕는다

싸락눈 날리는 어스름밤

작은 바위로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화들짝 놀라 침묵의 절벽 끝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요나

오금 저린 얼굴로  
파도치듯 들이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시달리다가

옷 벗고 눈에 젖은 나무로  
니느웨 항구에  
어둠으로 눕는다



## 아버이 사랑과 슬픔 극복 방법으로서의 시

- 감윤옥 시인의 작품 세계 -

시인 양왕용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동북아기독교작가회의 한국 회장)

감윤옥 시인이 첫 시집을 내면서 필자에게 작품 세계를 조명해 달라고 부탁을 해 왔다. 감 시인의 시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크리스천문학》 2022년 상반기 호에서 그의 작품 「그 섬에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감 시인은 그 작품에서 고독하고 절망적인 화자에게 찾아오는 주님을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섬’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시집에는 그러한 ‘궁극적 관심’은 제5부에 편집되어 있었다.

감 시인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 앞부분에 편집되어 있었다. 그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1부 <등 굽은 새우>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시적 제재로 하여 신산한 유년 시절과 그 시절의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가만히  
그릇 하나를 꺼냅니다  
깨진 데 없어  
잘 쓰던 흰 사기그릇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괜히 된장 한 손갈 꺼냅니다  
그 냄새 속에  
어머니의 손마디가 숨어 있습니다

차가운 그릇에  
김이 서릴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등을 기다리는 일은  
바람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조용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괜히 눈물이 납니다  
이유도 없이  
물이 넘치듯 고인 눈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 눈물을  
작은 밥그릇 하나에  
조용히 담습니다

- 「돌아오지 않을 등을 기다리는 일」 전문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감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감 시인 자신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이 시는 시 밖에 있는 시적 청자에게 존칭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듯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움을 부분적으로 사물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형상화에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앞부분 1~4연에서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성한 흰 사기그릇 하나를 꺼내어 거기다가 된장을 풀어 그 냄새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한다는 자신의 행위를 산문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사용했을 수도 있는 그릇과 된장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손마디’를 발견한다는 표현으로 사물화 혹은 냄새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적이다.

다음으로 5연의 ‘돌아오지 않을 / 등을 기다리는 일은’이라는 표현에서 이 시의 제목이 유추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등’이라는 시어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시만으로는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의 약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작품 다음에 편집된 「등 굽은 새우」라는 작품과 연결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등으로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 등에 업혀 느낀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6연에서는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 괜히 눈물이 난다’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한다. 마지막 7연에서는 다시 시적 표현이 등장한다. 흘린 눈물을 아무도 모르게 밥그릇에다 담는다고 하여 사물화에 성공한다.

물론 직설적인 표현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유적이거나 사물화에 성공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감 시인의 이 작품은 일단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고 있다.

어머니가 길을 나섰다

낮익은 집 기둥도 잊으시고  
꽃피는 담장도 잊으시고  
봄 햇살 젖은 발자국  
한참을 가다가 사라졌다

나는 흙냄새 속에서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돌아오시지 않는  
저 하늘 끝에 대고 부른다

어두운 새가  
어머니 기억을 쫓아 먹고  
남은 그늘이 바람에 흩날린다

슬픔은 뿌리로 깊어져  
내 가슴을 파고들고  
안타까움은 피로 올라  
눈물꽃이 되어 핀다

어머니,  
길 잃은 저 불빛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라  
내 심장 끝에  
등불 하나 켜 놓는다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전문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부터 추억하고 있는 작품이다. 앞부분에서는 어머니는 어느 봄날 정든 집을 떠났다는 것을 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어머니의 일생을 감 시인은 ‘봄 햇살 젖은 발자국’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인한 슬픔 혹은 죽음이라는 정서와 상황을 희망적인 계절인 '봄'을 등장시켜 극복하고 있는 점이 이 시의 특색이다.

이러한 특색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감 시인 시 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감 시인의 시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세계관은 감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의 죽음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그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5연과 6연에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연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을 '내 심장 끝에 / 등불 하나 켜 놓는다'라는 표현으로 감각화하고 있다.

깜깜하고  
묵직한 길

마음도  
다리도

휘청거리는 오후

가시투성이  
온몸을 만지며  
덩굴처럼  
엮혀드는 손발

온몸이  
다 젖게  
강을 건너면서  
떠내려 보낸 울음

어지러웠던  
청춘의 발자국

해 지는 하늘에  
빨갭게 익은 감이 되어  
눈물이 등꼴으로  
주  
령  
주  
령

- 「아버지의 발자국」 전문

이 작품은 ‘아버지’를 시적 제재로 한 작품 가운데 한 편이다. ‘어머니’의 시편들이 그리움과 슬픔 등의 정서로 표현된 데에 비하여 ‘아버지’ 시편들은 가장으로서의 어렵고 강인한 삶의 자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진술보다 농부로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하는 힘든 노동과 그로 인하여 거칠어진 손발의 상태를 비유적이고 간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 4~5연에서는 신산한 농부의 삶이 울음과 눈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그 정서들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강물을 건너면서 / 떠내려 보낸 울음’이라고 사물화 혹은 감각화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눈물’이 등꽃처럼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을 형태주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절제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제2부 <덩굴은 바다를 향해 자란다>와 제3부 <별을 삼키는 바다에게>는 주로 바다를 제재로 한 시편들이 많다. 그 가운데 감 시인의 삶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두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꿈은 가만히 젖는 불빛  
바다의 심장 한쪽에서  
물고기로 떨리며 널 기다렸다

친구는 파도 속 촛불 같은 존재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머물며  
울컥 솟던 어둠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인생은  
소금꽃 핀 상처 위를 건너는 일  
바람조차 등을 돌리는 날에도  
네 지느러미에 기댈 수 있었다

별빛이 물속으로 떨어질 때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다시 떠오를 거야”

귓가에 남은 네 음성을 듣고  
햇살 한 조각을 품고 헤엄친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 하루를 안고

- 「조금 느려도」 전문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인 점

이 특색이다. 바다에 잠긴 물고기 입장에서 친구인 다른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다. 시적 화자 물고기와 그 친구 물고기 사이의 우정이라는 외연적 의미에서 보면 화자 물고기가 상처를 입고 절망에 쌓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친구의 지느러미에 기대어 있을 때 친구 물고기가 “괜찮아, 다시 떠올라 거야”라는 격려의 말에 힘입어 조금 느려도 다시 떠올라 헤엄친다는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감 시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친구의 격려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체험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우정이라는 주제를 바다의 물고기가 처한 상황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달리 말하면 이 시는 ‘바다’를 제재로 한 ‘우정’이라는 관념을 형상화한 일종의 관념시이다.

작은 꽃씨 하나  
바람에 실려  
바닷가 모래등에 떨어진다

소금기 어린 땅이었으나  
그 자리에 조용히 뿌리내린다

며칠 후  
나비 한 마리 날아와  
그 풀잎 위에 앉는다

햇살이 문을 열고  
바람이 꽃잎을 흔든다

나비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결 위로 날갯짓하며  
수평선을 향해 나아간다

바다는 나비를 품는다

나는 믿는다

나비 한 마리가  
세상 바꾸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바다 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 「나비는 바다로 간다」 전문

이 작품 역시 ‘바다’라는 사물의 역동성이나 그 속에서 펼쳐지는 바다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형상화하기보다 감 시인 자신의 신념 혹은 소망을 ‘바다’와 ‘꽃씨’ 그리고 ‘나비’라는 사물을 등장시켜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과 2연에서는 작은 꽃씨 하나가 바닷가 모래등에 떨어져 뿌리를 내려 생명력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3~4연에서는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꽃이 아닌 풀잎에 앉고, 풀잎에서 햇살을 받은 꽃잎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5~6연에서는 나비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평선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진술한 뒤에 나비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화자 즉 감 시인의 신념을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이론인 ‘나비효과’를 연상시킨다. 물론 나비효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는 ‘나비 한 마리가 세상을 바꾸는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감 시인 나름의 긍정적이고 낙관적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형상화 되어 있다.

필자는 감 시인이 이렇게 나비 한 마리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은 2000년도 훨씬 전 중동의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는 그의 신앙에서 왔다고 본다.

그런데 작금의 중동전쟁과 AI라는 편의주의에 환호하는 이 지구촌 현실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비효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4부 <찬물에 밥 말아 먹다가>의 시편들은 이 시집에서 유일하게 감 시인의 일상이 시적 제재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눈 뜨니  
COVID19  
그늘이 몸에 내려앉았다

머뭇거림은  
그림자다

목구멍 깊숙이  
모래가 굵어대고

기침 사슬에 묶이고  
입술은 타다 남은 장작 파편

혀끝은  
씻덩이 불길 위에 놓인다

숨결은  
재 냄새로 번지고

심장은  
북처럼 빈속을 울며  
물 한 방울 찾는다

“거기 누구 없소?”

“불로 소금 치듯  
내 영혼이 물처럼 녹았으니  
생수 한 방울  
생수 한 모금만  
목울대로 넘기게 해 주시오”

“거기, 누구 없소”

- 「갈증을 삼키다」 전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여 2024년 8월 19일까지 전 세계 704만 9,617명,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3만 5,934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 시적 제재가 되고 있다.

필자도 2022년 4월 8일간 음압병동에서 격리되어 치료한 적이 있으며, 두 아들 식구를 포함한 9명의 전 식구가 감염이 된 적이 있는 무서운 재앙이었다. 필자 역시 3편의 코로나 시편을 쓴 바 있다.

감 시인의 경우 역시 코로나19 체험을 그의 시편 가운데 다른 시편들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에 이 시의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의 직접화법적 표현은 절박한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한다. “거기 누구 없소”라며 생수를 달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회

심 후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피신하여 아라비아 사막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이방 선교 사역자로 단련되는 모습을 방불하게 한다.

깊은 노을이 식어가는 접시에  
기도하는 입김으로  
햇빛 밥내가 집 안을 채운다

하늘 무게가 따뜻하게 내려앉는 자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에  
가족들 생채기가 녹는다

밥 냄새 고인 틈새마다  
해맑은 눈길을 전해 주며  
숨결로 위로가 스민다

밥 냄새에 기대어 앉은 식솔  
가슴 위에 온기를 포개고  
식탁은 다시 햇살을 먹는다

- 「밥상머리에서」 전문

이 시는 감 시인의 작품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가족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가족들이 밥상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형상화하는데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연부터 ‘기도하는 입김’이라는 비유와 ‘햇빛 밥내’라는 비유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형상화된다. 2연의 ‘하늘 무게가 따뜻하게 내려앉는 자리’라는 비유로 그러한 분위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가족 서로서로 위로가 된다.

마지막 4연에서도 ‘가슴 위에 온기를 포개고’라는 비유나 ‘식탁은 다시 햇살을 먹는다’라는 비유들에서도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는 분위기가 충만하다. 앞으로 감 시인의 시들에서는 눈물이나 슬픔보다도 이러한 따뜻함과 행복을 표현하는 시편들이 많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5부 <별빛 한 줌을 가슴에 덮고>에서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그대로 시로 형상화된 시편들과 감 시인 혹은 시적 화자의 신앙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시편들로 편집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작품 가운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도  
개연성이 있는 시 한 편과 시적 화자의 신앙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시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새벽이슬에 새벽하늘이 다 젖도록  
힘한 벼랑 느릿느릿 걷는 무거운 그림자

날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청춘은 부러지고

흑백사진으로  
어두운 시간 속에 갇혀  
상처 입은 울음소리가  
꽃무늬로 자라나는 무거운 밤

피울음이 깊을수록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내 옷에 손을 대어라”

- 「나의 혈루증」 전문

이 작품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

는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이 나아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에피소드’를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물론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비록 제목이 〈나의 혈루증〉이라고 해도 혈루병 앓는 여자가 독백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1연부터 4연까지는 혈루증 앓는 여자의 내면적인 갈등을 전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전지적 화자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5연에서 혈루증 여자는 “내 옷에 손을 대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성경을 에피소드로 한 다른 작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시적 상황이 성경에 설정된 그대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상황이 성경과는 달리 전도되어 혈루병 앓는 여자는 수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 직접 음성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

따라서 제목 속의 ‘나’는 단순히 혈루증 앓는 여자라고만 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제목 속의 ‘나’는 혈루증 앓는 여자이면서 시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나’이기도 한 것이다. 즉, 다분히 다의성을 가진 ‘나’이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예수님의 옷을 여자가 만져 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는 상황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는 혈루증과 유사한 많은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다고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혈루증'은 개인의 혈루증이 아니라 오늘날의 청소년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여러 세속문화 그것도 영혼을 쪼먹는 타락한 세속문화에 물들어 있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는 교회나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교인이나 관련 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도로 감 시인이 창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도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시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다.

들꽃이 피었다  
눈물로 접힌 바람 한 귀퉁이에서  
말없이 계절을 꺼내며

하늘은 접힌 기도의 봉투  
그 안에 찢기지 않은  
별 하나 숨어 있고

슬픔은  
누군가 다녀간 자리마다  
빛을 놓고 간다

기도로 떠오르는  
너의 마지막 웃음이  
눈물 속에서 다시 별이 되었다

밤이면 나는  
그 들꽃 아래 눕는다  
별빛 한 줌 가슴에 덮고

- 「별빛 한 줌을 가슴에 덮고」 전문

이 시는 시적 화자로부터 떠나가 하늘의 별이 된 시적 청자 너를 그리워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지 않고 시적 화자 나는 너와의 이 별의 슬픔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슬픔 극복의 방법이다 ‘들꽃’과 ‘하늘의 별’이라는 사물을 등

장시켜 사물화에 성공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5부에 걸친 73편의 시 가운데 시적 형상화에 성공한 9편의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9편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의 특성은 그동안의 감 시인의 슬픔의 정서로 점철된 삶의 궤적이 사물화 혹은 감각적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시의 형상화 방법으로 극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 극복의 바탕 위에 감 시인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 상상력 혹은 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현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로서의 시들을 창작하는 시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해설을 마친다.



# 봄 햇살 젖은 발자국

감윤옥 시집

인쇄 2026년 4월 15일

발행 2026년 4월 20일

지은이 감윤옥

펴낸이 김종대

펴낸곳 예인문화사

등록번호 제2017-000008호 (553-01-00646)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22번길 49, (망미동) 3층

M. 010-3845-8599

E. gaserol@hanmail.net

값 15,000원

ISBN 979-11-92010-55-7 (03810)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는 생략합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본 사업은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